

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의 성취도 연구

Research on the achievement of museum volunteers

홍재주¹, 성승현²

Hong JaeJoo¹, Sung SeungHyun^{2*}

요약

박물관 자원봉사는 박물관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박물관 특성상 적은 예산으로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일부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까지 다양한 박물관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물관의 역할이 날로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학예사들이 볼 수는 없으므로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학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박물관 인력으로써 학예사와 같이 대우를 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 많은 개선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핵심어: 박물관,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자기개발

Abstract

Museum volunteer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existence and activities of museum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volunteer system because volunteers can do a variety of museum work in a non-profit museum, ranging from inconspicuous to professional work.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chievements of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questionnaires of museum volunteers. Since the role of the museum is growing day by day, the curators cannot see all the work, so volunteers should do the curriculum work with professionalism and pride through the museum volunteer education program. At the same time, many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the museum so that it can be treated like a curator and treated better.

Keyword: Museum, Volunteering, Educational programs, Self development

1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jaejoo.hong@kookmin.ac.kr

2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seunghyun.sung@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November 30.2016), Review (December 11.2016), Accepted(December 31.2016)

1. 머리말

박물관 자원봉사는 박물관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박물관은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교육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지식의 습득과 개인의 만족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박물관 특성상 적은 예산으로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일부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까지 다양한 박물관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도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이 분석을 통해 박물관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박물관 자원봉사와 자기개발

1) 자원봉사의 개념과 의의

자원봉사의 어원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will)와 욕망(desire)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자유의지(voluntas)에서 기원한 것으로, 프랑스어로는 '기쁨의 정신', 영어의 명사로는 '자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발적 관심에 바탕을 두고 타인이나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전국 자원봉사활동 진흥 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첫째, 인간으로써 서로 돕고 격려해 주는 활동, 둘째,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활동, 셋째,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의지가 되는 활동, 넷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협력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1].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1930년의 세계 사회사업가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대상과 영역 및 목적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자원봉사라는 말이 현재는 자원봉사자(volunteer), 자원봉사활동(volunteerism)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용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voluntarism의 의미는 '어떤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민간기관, 비영리기관과 재단, 종교, 자선사업은 포함되지만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 활동'이며, volunteerism의 의미는 '자원봉사자들이 행하는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련 있는 정신을 의

미하는 것으로 비영리조직 뿐 아니라, 정부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2].

자원봉사자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사람이다. 자원봉사자를 줄여 '봉사자'라고도 하며, 그런 자원 봉사자가 모인 단체를 자원봉사단이라 한다. 코헨(Cohen)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란 시민들의 민주적 생활방식을 발달시키고, 사회의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보다 인간적인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 특히 이웃 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본적이고 무리 없는 사회개혁을 달성시키며, 각 개인의 성숙과 사회제도의 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창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자라고 한다[3]. 또한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특정 활동에 대해 시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봉사활동 중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환 받는 것은 보상이 아니므로 자원봉사활동 중의 개인적인 지출(교통비, 식비)은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4]. 자원봉사는 사회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 모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사회적 의의를 살펴보면, 자원봉사는 시민의 자발성에서 우러나온 민간 활동이고 또한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이므로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개인적 의의로서,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시간, 기술, 지식을 자기가 아닌 타인의 복지 혹은 공익을 위한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지식, 기술, 태도, 면에서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되며,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결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며, 그 활동과 관련하여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결국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5].

현대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개인 능력의 한계를 넘으면서 사회보장이 제도화되기는 했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정부차원을 넘어 범국민적인 자조운동 내지는 시민들의 새로운 지역봉사활동으로 고무되어야한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각종 비복지적 요인들의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가 급증하자 그 문제해결 및 예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또는 사적 조직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활성화 요구가 증진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책임의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욕구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수요자가 기대하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실정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이러한 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 강화하는 의의를 갖는다[6].

2) 박물관 자원봉사의 역사

미국의 박물관 자원봉사활동은 20세기 초 무렵부터이다. 1870년 보스턴과 뉴욕에 미술관이 개관하였고, 1907년 보스턴 미술관에 의해서 도슨트라고 불리는 자원봉사 안내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1970년 박물관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1974년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World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이 창립되었다. 또한 2년 뒤인 1976년 미국박물관 자원봉사협회(USAMV: U. S Association of Museum Volunteers)가 창립되게 되었다. 이후 미국박물관 자원봉사협회는 미국박물관협회(AAM: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와 제휴하고 1986년 미국자원봉사협회(AAMV: American Association for Museum Volunteers)로 개칭하여 박물관 자원봉사자가 37만 5천명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이 만들어 졌다. 이를 통하여 박물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새로운 정보와 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7].

우리나라의 박물관 자원봉사활동은 1988년 올림픽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전시소장품을 설명했던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후 여러 미술관, 박물관으로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기간은 불과 10년 안팎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역할도 전시설명 분야에 치중해 있다. 현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박물관·미술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국·공립박물관, 삼성미술관 등이 있다[7].

3) 박물관 자원봉사를 통한 자기개발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와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기술과 개인의 권리가 향상됨에 따라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여가의 건전한 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분업화로 인하여 노동으로부터 개인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박물관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능력 향상과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아실현의 계기를 만들어 간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학교 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현장의 체험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사회교육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사회의 기반이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는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과정이며, 동시에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8].

3. 박물관 자원봉사자의 설문조사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 성별분포

설문에 응하는 응답자는 총 59명으로 남녀의 성비를 비교해보면 남성이 4명, 55명으로 각각 7%와 93%를 차지했다.

[표 1] 성별 분포

[Table 1] Gender distribution

성별	인원	비율(%)
남성	4	7
여성	55	93

나. 연령별 분포

연령 분포를 보면 30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30-39세가 1명(2%), 40-49세가 4명(7%), 50-59세가 24명(40%), 60세 이상이 30명(51%)으로 대부분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는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령별 분포

[Table 2] Age distribution

나이	인원	비율(%)
19세~29세	0	0
30세~39세	1	2
40세~49세	4	7
50세~59세	24	40
60세 이상	30	51

다. 직업별 분포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부가 41명(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공무원 (교사 포함)이 9명(15%), 기타가 4명(7%), 회사원이 3명(3%), 자영업이 2명(3%), 학생(대학, 대학원이상)이 0명(0%)으로 나타나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의 구성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주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직업별 분포
[Table 3] Occupation distribution

직업	인원	비율(%)
학생(대학, 대학원이상)	0	0
주부	41	70
공무원(교사 포함)	9	15
회사원	3	5
자영업	2	3
기타	4	7

2) 자원봉사활동 경력

가. 국립중앙박물관 일일 자원봉사활동 시간

자원봉사자들의 일일 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5-6시간이 35명(59%)으로 가장 많았고, 3-4시간이 20명(34%), 7-8시간이 4명(7%)으로 나타났다.

[표 4] 일일 자원봉사활동 시간
[Table 4] Daily volunteer time

일일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원	비율(%)
1시간~2시간	0	0
3시간~4시간	20	34
5시간~6시간	35	59
7시간~8시간	4	7
8시간 이상	0	0

나.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 활동기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기타가 28명(47%)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5년 이상이 21명으로(36%), 3-4년이 7명(12%), 1-2년이 2명(3%), 1년 미만이 1명(2%)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10년 이상이 18명, 10년 미만이 10명으로 장기간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꾸준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 활동기간

[Table 5] National Museum of Korea volunteer period

국립중앙박물관 활동기간	인원	비율(%)
1년 미만	1	2
1년~2년	2	3
3년~4년	7	12
5년 이상	21	36
기타	28	47

다. 자원봉사 활동경험

타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경험은 '있다'가 37명(63%), '없다'가 22명(37%)으로 절반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타 기관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음이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기관으로는 궁궐지킴이, 육군박물관, 몽촌역사관, 과천과학관, 예술의 전당 등의 문화·예술 관련기관과 노인복지관, 시·도 자원봉사단체, 도서관등의 일반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타 기관 자원봉사 활동경험

[Table 6] Other organization volunteer activity experience

자원봉사 활동경험	인원	비율(%)
있다	37	63
없다	22	37

타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기간으로는 기타가 12명(32%), 5년 이상이 11명(30%), 3-4년이 8명(22%), 1-2년이 3명(8%), 1년 미만이 3명(8%)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이전에 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왔거나 현재에도 타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타 기관 자원봉사 활동기간
[Table 6] Other organization volunteer period

국립중앙박물관 활동기간	인원	비율(%)
1년 미만	3	8
1년~2년	3	8
3년~4년	8	22
5년 이상	11	30
기타	12	32

3) 자원봉사 활동관련

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항목은 자아실현성, 자발성, 무보수성, 성취도, 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아실현성에 관련된 질문을 보면 공익증진을 위해서라면 자발적으로 자기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그렇다'가 51명(86%), '보통이다'가 8명(14%), '그렇지 않다'가 0명(0%)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3명(73%), '보통이다'가 10명(17%), '그렇지 않다'가 6명(10%)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기관과 자신의 목표 일치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1명(69%), '보통이다'가 11명(19%), '그렇지 않다'가 7명(12%)으로 전체에 2/3이상이 자아실현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자아 실현성에 대한 인식
[Table 7] Awareness of self-fulfillment

질문	답변	인원	비율(%)
공익증진을 위해서라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51	86
	보통이다	8	14
	그렇지 않다	0	0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공식적인 자원봉사기관이나 조직을 통해서 돕고 싶습니까?	그렇다	43	73
	보통이다	10	17
	그렇지 않다	6	10
자신의 생각과 자원봉사기관의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41	69
	보통이다	11	19
	그렇지 않다	7	12

자발성에 대한 항목은 3부분으로 나누어 졌으며, 자신이 배운 지식과 소양을 자원봉사를 통해 환원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 새로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그렇다'가 53명(90%), '보통이다'가 5명(8%), '그렇지 않다'가 1명(2%)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그렇다'가 54명(91%), '보통이다'가 5명(9%)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선택의지로 타인을 돕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가에 대한 문항에는 '그렇다'가 57명(96%), '보통이다'가 2명(4%)으로 나타났다. 자발성에 관련해서는 90%가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선택 의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8] 자발성에 대한 인식
[Table 8] Awareness of spontaneity

질문	답변	인원	비율(%)
자신이 배운 지식과 소양을 자원봉사를 통해 환원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53	90
	보통이다	5	5
	그렇지 않다	1	2
자원봉사활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54	91
	보통이다	5	9
	그렇지 않다	0	0
자유로운 선택의지로 타인을 돕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57	96
	보통이다	2	4
	그렇지 않다	0	0

무보수성에 대한 항목으로는 물질적 보수보다는 정신적 보수가 중요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41명(70%), '보통이다'는 13명(22%), '그렇지 않다'는 5명(8%)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없을 때가 진정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40명(68%), '보통이다' 10명(17%), '그렇지 않다' 9명(15%) 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받는 보상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25명(42%), '그렇다'가 18명(31%), '그렇지 않다'가 16명(27%)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신적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받고 있는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만족하는가에 '그렇다'가 50명(84%), '보통이다' 4명(7%), '그렇지 않다'가 5명(9%)으로 응답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계기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11명(19%), '나의 능력,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서'가 21명(36%),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15명(25%),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가 9명(15%), '기타'가 3명(5%)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57명(97%), '보통이다'가 2명(3%), '그렇지 않다'가 0명(0%)으로 조사되었다.

[표 9] 무보수에 대한 인식
[Table 9] Recognition of unpaid

질문	답변	인원	비율(%)
자원봉사활동은 물질적인 보수보다 정신적인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41	70
	보통이다	13	22
	그렇지 않다	5	8
보수가 없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40	68
	보통이다	10	17
	그렇지 않다	9	15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받는 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8	31
	보통이다	25	42
	그렇지 않다	16	27

[표 10] 만족도에 대한 인식
[Table 10] Awareness of Satisfaction

질문	답변	인원	비율(%)
현재 기관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	50	84
	보통이다	4	7
	그렇지 않다	5	9
자원봉사활동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11	19
	나의 능력,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서	21	36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5	25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9	15
	기타	3	5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57	97
	보통이다	2	3
	그렇지 않다	0	0

4. 맺는말

요즘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박물관 자원봉사활동자의 수가 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가 전시 해설에서 다양한 박물관 업무로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설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었다.

박물관의 역할이 날로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학예사들이 볼 수는 없으므로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학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박물관 인력으로써 학예사와 같이 대우를 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 많은 개선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References

- [1] Y. H. Kim, The theory and practice of volunteer work, Changjisa, Korea, (2002).
- [2] P. H. Lee, N. D. Baik, Theory of volunteer work, Hyngseul Publishing Networks, Korea, (2000).
- [3] H. G. Choi, Master's Thesis, Hyosung Women's University. (1992).
- [4] I. H. Jang, S. J.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1).
- [5]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Understanding of Gerontology, DaeYoung Co., Korea, (2002).
- [6] J. S. Kang,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7] S. J. Yang,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3)
- [8] Volunteer Program Encyclopedia,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1997)